

# 동사이동은 통사이동으로 부적절한가?\*

김대익  
(영산대학교)

**Kim, Dae-Ik. (2023). Is verb movement as a syntactic operation illegitimat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1(4). 35-55. The Verb movement has appeared in many versions of generative grammar and the minimalist program. In GB as an instance of Move- $\alpha$ , verb movement was thought to be subject to standard well-formedness conditions applying to syntax. However, in the case of adjunction of a lower head to a higher head, verb movement operation violates several well-motivated constraints on syntactic structure, thus leading to Chomsky's (2001) claim that head movement can be attributed to PF and later the Chomsky's (2021) claim that verb movement takes place in the morphological component under Merge system.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verb movement operation is a syntactic one and show how to deal with the problems raised by adjunction analysis in syntax. Moreover among the three recent approaches designed to get rid of multi-dominance caused by verb movement adjunction it is concluded that Kim's (2023) labeling algorithm approach (amalgamating  $X^0$  and  $Y^0$  if  $X^0$  intersects  $Y^0$ ) is preferred to the others, showing that this approach is totally compliant with the standardly suggested minimalism.

**주제어(Key Words):** 동사이동(verb movement), 통사부(syntax), 음성부(PF), 의미부(LF), 최소주의(minimalism), 병합(Merge), 다중지배(multi-dominance), 어순 공리(LCA), 혼합체(amalgamation), 인접(adjunction)

## 1. 서론

언어가 어떻게 생성되고 발화되는지를 연구하는 생성문법(GB) 및 최소주의 언어학에서 동사이동은 언제나 문제가 되어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Chomsky (1957)부터 Chomsky(1981) 전까지의 생성문법에서 동사이동은 구 구조(phrase structure) 꺾

---

\* 이 논문은 2023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작성된 논문이다. 이 논문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칙에 따라 일반이동과 같이 이동함을 보여주고(예문 4참조, Chomsky(1981)에서 Chomsky(1991) 전까지는 엑스바(X-bar) 구조를 통한 통사부 이동으로 'Move- $\alpha$ '에 속하는 이동으로 보았다. 또한 Chomsky(1991)와 Chomsky(1993)에서는 통사적 운용인 T의 v자질과 V의 T자질의 자질점검(feature checking)과 경제적 도출(derivation of economy)로 동사가 이동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통사부 이동에서 동사이동은 다른 제약들과 충돌한다. 즉 동사이동은 일반 통사적 이동과 달리 이동해도 의미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확장조건(extension condition)을 위배하고, 이동한 동사가 남아 있는 흔적을 결속하지 못한다. 또한 동사이동은 동사만 이동하지 않고 접사와 함께 이동하므로 연쇄일률성 조건(chain uniformity condition)을 위배한다.<sup>1)</sup> 또한 A가 같은 성향의 A 범주가 간혀있는 경우([A..[A..]], 후자 A는 전자 A의 바깥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A-over-A조건(A-over-A Principle)을 위배하여 일반적 NP이동과 다른 이질적인 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Chomsky(1995, pp. 4-10; 2001, pp. 37-8)은 돌연 견해를 바꾸어 동사이동은 의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동사이동은 통사부 이동이 아니라 음성 부문(PF)에서 발생하는 이동이라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동사이동이 LF이동이라는 주장들도 제기된다(Lechner, 2005). 하지만 동사이동이 PF나 LF에서 적용된다는 주장은 목적어 유사 공백현상(pseudogapping)이나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 NPI)와 같은 단순한 현상들에 기인한 주장들이며 더 이상 심도 있는 주장들은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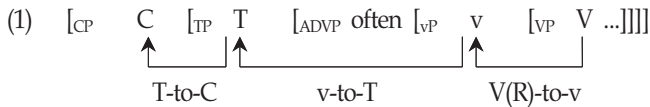
이후 언어의 구조체계는 병합(Merge)만이 구문을 확장하는 통사부의 운용체계로 보는 필수 출력 구조(bare phrase structure)로 바뀌어, Chomsky(2013; 2015; 2019)은 또다시 동사이동은 통사부에서 동사가 짝이동(pair-merge)으로 이동하며 명찰 알고리즘(labeling algorithm)에 따르는 통사부 이동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서도 짝병합은 같은 범주에 인접되는 다중 병합(multi Merge)이므로 엄격한 이중병합(binary Merge)만을 허용하는 통사부에 양립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Chomsky(2021, p. 36)에서 동사이동은 표현(externalization)하는 운용으로 INFL과 융합(amalgamation)하는 어형부 이동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통사부에서 다중 병합을 이중병합으로 만드는 연구들이 제기되어, 본 글은 Chomsky(2001; 2021)의 입장과 달리, 동사이동은 이전처럼 통사부에서 적용되며, 이런 여러 연구 중에서 어떤 연구가 가장 최소주의에 맞는 연구인지 가려내려 한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동사이동의 이동 층위에 관해 설명하며, 제3장은 엄격 이중성(strict binary)이라는 통사부의 제약(constraint)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설명법이 적절한지를 논하며 제4장은 결론이다.

1) 이 제약들의 정의는 각주 5와 각주 7과 각주 11을 참조해 줄 것.

## 2. 동사이동 특성과 층위

### 2.1. 동사이동의 특성

동사이동이란 아래 (1)처럼 동사 V(R)이 구문상의 v, T, C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동사이동 유형을 영어, 불어, 독일어 주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 a. John often kisses Mary. (English)  
 b. Jean embrasse souvent Marie. (French)  
    John kisses often Mary  
 c. Gestern sah Hans Maria nicht. (German)  
    yesterday saw Hans Maria night  
    'Yesterday Hans did not see Maria'

영어 구문 (2a)에서 어근 V(R)이 경동사 v로 이동하여(V(R)-to-v), 'like'라는 동사가 형성된다. 그래서 V(R)-to-v이동되어 'kiss'가 되고 이후 'often' 왼쪽에 있는 접사 -s가 하강하여 'kisses'가 된다. (2b)의 부사어 'souvent' 언제나 TP와 vP사이에 위치하므로(Pollock, 1989), 동사 'embrasse'가 부사어 'souvent'의 왼쪽으로 이동하여 v-to-T 이동된 결과이다. (2c)는 대표적 V2 구문이다. 즉 동사 'sah(saw)'는 주어 Hans의 왼쪽에 위치하여 v-to-T-to-C 이동한다. 주어는 언제나 TP Spec에 위치하므로 'sah(saw)'는 주어를 뛰어넘어 T-to-C 이동된 결과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동사의 위치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위치와 관계없이 같다. 그래서 동사이동은 구문의 해석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이 동사이동의 특징으로 첫째로 이동할 때, 핵 이동 제약(head movement constraint)<sup>2)</sup>에 따라 같은 동사 범주를 건너뛰어 이동할 수 없다. 둘째로 동사이동이 되면, 동사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동사가 접사(affix)와 함께 이동한다(Dékány, 2018, p. 3).

- (3) a. Does John like Mary? (English)  
 b. Wij speele-de-n in de speeltuin (Dutch)  
    we play-pst-3pl-in the playground  
    'We were playing in the playground'

2) 이 정의는 예문 5참조바람.

- c. Ír-at-tat-hat-t-ak gyógyszer-t. (Hungarian)  
 write-Caus-Caus-Pot-Pst-3pl medicine-Acc  
 ‘They may have made somebody have medication prescribed.’

(3a)의 do 동사는 v에서 T로 이동하여 3인칭 단수 접사 \_s와 결합하여 ‘does’가 된 이후 다시 T-to-C 이동으로 구문의 앞으로 이동한다. (3b)의 동사 ‘speele(play)’는 T에서 과거 시제 접사-de와 복수 접사 -n과 차례로 결합하여 ‘spee-de-n’라는 접사어미를 갖고 있다. (3c)의 동사 ‘Ír(write)’에는 사역 접미사들과 잠재 mood 접미사(Pot)와 과거시제 및 3인칭 복수 접미사를 가지고 있다. 생성문법에서는 1980년대에 이러한 접사의 어순은 거울 이론(mirror principle)<sup>3)</sup>에 의해 기저 통사구조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거울 이론이란 접사 도출(morphological derivation)은 통사 도출(syntactic derivation)을 반영한다는 이론이다. 즉 동사가 이동하기 전에 합체된 접사는 이동한 후 합체한 접사보다 어근 가까이에 위치하고, 이동사와 접사의 결합체는 따로 이동할 수가 없다.<sup>4)</sup> 그래서 그 당시는 동사이동은 도출 도중 그 성격이 바뀌며, 이 거울 이론에 따라 통사부에서 적용된다고 보았다.

## 2.2. 생성문법의 동사이동과 위반 사항들

생성문법 초창기부터 동사이동은 통사부에서 적용되는 운용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Emonds(1978)은 프랑스 구문에서 다음 (4)처럼 동사 ‘aime’가 ‘Tense’로 V-to-T 이동을 아래 (4)의 ‘4+2’로 분명히 보여주었다.

- (4) a. Jean Tense (n') pas aime Marie  
           1      2      3      4      5  
 b. NP(1)-Tense(2)-X-V-Y → 1-4+2-3-0-5

그 이후 통사부에서 동사이동은 단계별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Travis(1984)의 핵 이동 제약을 준수한다.

- (5) Head Movement Constraint (HMC)  
 An X<sup>0</sup> may only move into the Y<sup>0</sup> which properly governs it.<sup>5)</sup> (Travis, 1984, p. 131)

3) The Mirror Principle (Baker, 1985, p. 375) Morphological derivations must directly reflect syntactic derivations (and vice versa).  
 4) Lexical Integrity Hypothesis (Lapointe, 1980, p. 8) No syntactic rule can refer to elements of morphological structure.

이 제약은 동사는 앞에 있는  $X^0$ 를 뛰어넘어  $Y^0$ 로 갈 수 없고, 언제나 자신을 지배하는  $X^0$ 에 갔다가  $Y^0$ 로 가야 함을 말하는 제약이다. 이후 생성문법에서 동사이동은 통사부에서 적용되는 'Move- $\alpha$ '의 한 경우로 보아서 동사이동이 분명한 통사부 이동을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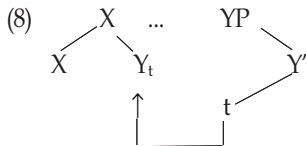
(6) Head movement is the case of Move- $\alpha$  where  $\alpha$  is  $X^0$ . (Chomsky, 1986, p. 4).

이렇게 동사이동이 통사부 이동이라면 동사이동은 다음 이동상의 일반적인 제약에 적용받는다.

- (7) a. 구조보존(structure preservation)
- b. 인접성(locality)
- c. 공범주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

(7a)는 그 당시 생성문법의 엑스바 이론에 따라 XP는 [XP-Spec]으로만 이동되고,  $X^0$ 는  $X^0$ 로(head-to-head)만 이동된다. 또한 (7b)에 따라 동사이동은 핵 이동 제약에 따라 순환적(cyclic)으로 적용되며, 함부로 다른 핵을 뛰어넘어 이동할 수 없다. 또한 동사가 이동하면, 남아 있는 그 흔적은 적절한 지배(govern)를 받아야 하는 (7c)도 나타난다. 이후 생성문법에서 동사이동은 도출의 경제성으로 이동된다는지(Chomsky, 1991), 기능 범주 AgrP의 속성에 따라 V-to-T 이동이 결정된다는지(Pollock, 1989), T와 V자질의 자질점점의 강약에 의해 결정된다는지(Chomsky, 1993), 기능 범주의 순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지(Ouhalla, 1989), 등등의 통사적 운용들로 동사이동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동사이동이 통사부에서 적용된다는 점에 반하여, 동사이동은 (8)과 같이 다른 동사의 핵에 인접(adjunction) 이동된다는 측면에서 통사부 위반사항들이 관찰되었다.



5) 이 핵 이동 제약은 Roberts(2011)에서 다음처럼 재정의되었다.

Head Movement Constraint: Head movement of  $\alpha$  to  $\beta$  cannot skip and “intervening” head  $\gamma$  ( $\gamma$  intervenes between  $\beta$  and  $\alpha$  off  $\beta$  asymmetrically c-commands both  $\alpha$  and  $\gamma$ , while  $\gamma$  asymmetrically c-commands  $\alpha$ ).

(8)의 Y는 동사 이동하여 기존 X에 인접한다. 하지만 이런 인접이동은 통사부의 많은 제약들을 위반한다. 첫째로 (8)의 동사 Y가 X로 인접하면, 통사부의 제약인 확장조건<sup>6)</sup>을 위반한다. 확장조건이란 엑스바 이론을 따라 어휘가 병합되면, X'가 되고 또 어휘가 병합되면, XP로 구문을 확장하는 조건인데, (8)에서 기존에 이미 확장된 XP 안의 X에 Y가 이동하므로 반 순환(anti-cyclicity)적으로 확장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둘째로 (8)과 같은 인접이동에서 이동한 Y는 그 흔적을 성분 통어하지 못한다. 생성문법의 통사부에서 어휘가 이동하면, 남아 있는 그 흔적은 성분통어로 반드시 결속(bound)된다.<sup>7)</sup> 그러나 (8)의 이동한 Y의 첫 번째 가지(branch)가 X여서, X는 Y를 지배(dominance)하지 못한다. 따라서 동사이동에서 동사 Y가 다른 핵 범주인 X로 이동해도 자신의 흔적을 성분 통어하지 못한다. 셋째로 동사이동을 하면, 동사만 이동하지 않고 이동한 핵(접사)과 함께 결합하여 이동하므로 통사부 조건 중 연쇄 일률성 조건을 위반한다.<sup>8)</sup> 연쇄 일률성 조건이란 이동을 하는 경우 언제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이다. X<sup>0</sup> 상태인 동사가 이동 중에 접사와 결합하여 이동하므로 'X<sup>0</sup>+접사'의 상태가 되어 이런 일률적인 연쇄 상태를 위반한다. 넷째로 (8)처럼 X에 인접된 핵 Y는 같은 핵 X에 간혀있어서 A-over-A 규칙<sup>9)</sup>에 따라 이동할 수 없다. A-over-A 규칙이란 A가 같은 성향의 A 범주가 간혀있는 경우([A..[A..]]), 후자 A는 전자 A의 바깥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규칙이다. 즉 동사 Y가 X로 인접하여 [.. X<sup>0</sup> [X<sup>0</sup> Y<sup>0</sup>..]]로 된 경우 핵인 Y<sup>0</sup>는 같은 핵인 X<sup>0</sup>를 벗어나서 이동할 수 없다.

이처럼 동사이동은 통사부에서 확장조건, 성분통어, 연쇄 일률성 조건 및 A-over-A 규칙을 위반하므로, 급기야 Chomsky(2001)은 다음과 같이 동사이동이 구문해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통사부 이동이 아니라 PF 이동이라고 한다.

- (9) “V-raising is [...] not part of the narrow-syntactic computation but an operation of an phonological component, ... there are some reasons to suspect that a substantial core of head raising processes, excluding incorporation in the sense of Baker(1988), may fall within the phonological component. (Chomsky, 2001, p. 38)

6) The Extension Condition (Chomsky, 1993, p. 23) GT and Move  $\alpha$  extend K to K', which includes K as a proper part.

7) Proper Binding Condition (Fiengo, 1977, p. 45) In surface structure S, if [e] is not properly bound, then S is not grammatical.

8) Chain Uniformity Condition (Chomsky, 1995, p. 253) A chain is uniform with regard to phrase structure status.

9) A-over-A Principle (Chomsky 1973, p. 235) If a transformation applies to a structure of the form [  $\alpha$ ... [A... A...]]  $\alpha$ , where  $\alpha$  is a cycle node, then it must be so interpreted as to apply to the maximal phrase of the type A.

### 2.3. 생성문법에서의 PF 층위의 동사이동

Chomsky(2001)는 (9)처럼 언급한 근거로 동사이동은 구문해석에 이바지하지 않으며, Grodzinsky & Finkel(1998)의 신경 언어학(neuro-linguistics) 연구에서 실어증 환자가 XP이동과 X<sup>0</sup> 이동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연구를 받아들여, 담화 상 주제(theme)가 되어 이동하는 Thematization(Th)/Extrapolation(Ex) 이동처럼<sup>10)</sup> 동사이동도 PF 이동이라고 하였다.<sup>11)</sup> 특히 Chomsky(2001, p. 38)에서 동사이동은 음성적 현상으로 나타나며, 굴절 범주의 음성적 접사 성격으로 PF에서 이동된다. 이런 점에 발맞추어 Boeckx and Stejepanovic (2001, 이후 B&S)는 삭제 현상이 PF에서 발생하는데, 목적어 유사 공백 현상(pseudogapping)으로 동사가 PF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고 한다.

- (10) a. Although John doesn't eat Pizza, he does-pasta.  
 b. ... he does-pasta [eats pasta]  
 c. \*... he eats [<sub>VP</sub> (eats) pasta ]

(10)의 유사 공백 구문은 (10b)처럼 먼저 do동사와 'pasta'가 이동한 이후 PF에서 [eats pasta]가 삭제된 구문이라서 'he does-pasta'라고 도출이 된다. (10c)에서 본동사 eats 이 먼저 이동하고 이후 삭제되면, (10c)처럼 비문이 된다. 따라서 목적어 이동과 동사이동과 삭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sup>12)</sup>

- (11) a. object shift > ellipsis > pseudogapping  
 .. he does pasta [eats (pasta)]  
 b. object shift > verb movement > ellipsis >  
 .. he eats pasta [eats (pasta)]  
 c. verb movement > ellipsis  
 .. \*he eats [<sub>VP</sub> eats (pasta)]

(11)에서 목적어 이동이 삭제보다 먼저 되면, 정문이 되지만(11a, b), 동사이동이 삭제보다 먼저 되면 비문이 된다. 즉 목적어 이동은 분명한 통사부 이동이므로 통사부 이동 이후

10) Chomsky (2001, p. 21): Th/Ex is an operation of the phonological component.

a. there entered the room a strange man.  
 b. there hit the stands a new journal.

11) Chomsky (2001, p. 38): "overt V-to-T raising, T-to-C raising, and N-to-D raising are phonological properties, conditioned by the phonologically affixal character of the inflectional categories."

12) 이 설명은 Roberts(2010, p. 10)에서 인용되었다.

동사이동이 되던, 삭제가 되든 상관없지만, 통사부 이동이 없이 동사이동과 삭제만 적용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만약 동사이동이 통사부 이동이라면 (11c)는 비문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런 B&S(2001)의 논리는 다음 Baltin(2002, p. 655)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명된다. Baltin(2002, p. 655)는 (11)과 같은 양상이 이동하지 않는 ‘fond’와 같은 서술어 구문에도 똑같이 (11)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11)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한다.

- (12) a. Although he isn't fond of pasta, he is (fond) of pizza.  
 b. Although Smith isn't easier to please than Suzi, he is than Tom.

(12a, b)처럼 유사 공백 현상에서 이동하지 않는 형용사(fond)나 AP구문 (easier to please)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삭제되지 않은 ‘of pizza’(12a)와 ‘than Tom’(12b)은 B&S(2001)의 분석에서 이동되어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영어에서 ‘of pizza’(12a)와 ‘than Tom’(12b)는 이동하는 어휘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유사 공백 현상으로 동사이동의 층위를 설명할 때 유사 공백 현상은 올바른 설명 방법이 아니다. 한편 Schoorlemmer & Temmerman(2012)는 동사구를 삭제할 때 동사 자체를 제외한 다른 논항이나 인접어들이 삭제된다고 한다. 이렇게 동사가 삭제되기 전 이동하면, 삭제된 요소는 반드시 이동한 요소와 같아야 하는 동일성(identity)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히 동사인 경우, 이동한 동사와 남아 있는 동사(삭제되는) 사이는 반드시 같은 동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동일성을 보장받기 위해 Schoorlemmer & Temmerman(2012)는 LF(Logical form)에서 자질이동 때문에 동사 간의 동일성이 되지 않아 동사가 이동하지 않지만, PF에서 자질이동이 없어서 동일성이 보장되어, 해석과 관계없이 동사 이동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동사이동이 PF에서 일어난다는 Schoorlemmer & Temmerman(2012)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Gribanov(2017)에서 주장하듯 동사가 LF와 PF에 다 존재한다는 Schoorlemmer & Temmerman(2012)의 주장 자체가 동사이동이 통사부에서 발생해야 이후 LF와 PF에서 같이 나타날 수 있기에 오히려 이는 동사이동이 통사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동사이동은 PF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2.4. 생성문법에서의 LF 층위의 동사이동

동사이동은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 NPI)와 영역(Scope) 현상으로 LF에서 적용된다는 주장들이 있다(Lechner, 2005; Roberts, 2010). 이 주장에 따르면 부정극어 ‘any’는 언제나 부정어 ‘not’에 의해 성분통어 받아야 하는데 이 부정어 ‘not’ 때문에 동사이동이 나타난다.



- (13) a. Nobody mentioned anything about it.  
 b.\* Anything about it, nobody mentioned.  
 c.\* Anyone didn't notice John.  
 d.\* That nobody trusts him bothers anyone.  
 e. John didn't notice anyone.

(13a)의 부정극어 'anything'은 부정어를 포함한 대명사 'nobody'에 의해 성분통어를 받은 정문이다. 그러나 부정극어 'anything'이 (13b)처럼 화제화(topicalization) 되어 왼쪽으로 이동하면, 부정극어 'anything'을 성분 통어하여 허가해주는 부정어가 없어서 비문으로 된다. 또한 (13c, d)의 부정극어 'anyone'도 부정어 'not'에 의해 성분통어 되어 해석이 허가된다. 이때 (13c, d)의 'not'은 'didn't'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영어의 do 동사는 전형적인 V-to-T 이동되는 어휘범주이다(Pollock, 1989). (13c)의 'anyone'은 주어 위치인 TP Spec에 위치하고, 'didn't'는 T에 위치하여 'anyone'이 'didn't'에 성분통어 안 되어 비문이다. (13d)에서 'didn't'가 왼쪽에서 'anyone'을 성분 통어하므로 부정극어 'any'의 해석이 된다. 이처럼 부정극어의 허가는 부정극어 'any'와 부정어 'not'의 해석을 따르는 LF 현상이고, 동사이동은 이런 부정극어를 허가해 주기 위해 v에서 기저 생성된 do 동사가 Neg와 T로 동사 이동하여 'didn't'와 같은 동사 형태로 T로 이동하므로, LF에서 나타난다고 한다.<sup>13)</sup> 그다음 범조동사와 부정어나 부사어의 영역 문제로 동사이동이 발생한다고 한다(Lechner, 2005; Roberts, 2010, p. 13).

- (14) a. Bob can not (can) go along today. [can> not/ not> can]  
 b. Suzie can always (can) count on him. [can> always/ always> can]

(14a, b)에서 'can'은 'not'이나 'always'보다 넓은 해석영역이나 좁은 해석영역을 보여준다(Lechner, 2005, p. 7). 그 설명으로 범조동사 'can'은 경동사 v에서 T로 이동한다고 먼저 가정하고, LF에서 'can'이 재분석화(reconstruction) 되어 다시 경동사 v에 위치하면, 부사어 'not/always'보다 좁은 해석영역을 보여주고, 'can'이 이동한 T에 위치하면 부사어 'not/always'보다 넓은 해석영역을 보여준다. 이 말은 LF에서 범조동사 'can'이 v-to-T 이동하기 때문에 (14)와 같은 넓고/좁은 해석들이 나온다고 하며 이 점으로 LF에서 동사이동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본 글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사이동이 LF에서 나타나 재분석화로 해석영역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부정극어 구문 (13)에서도 (14)처럼 재분석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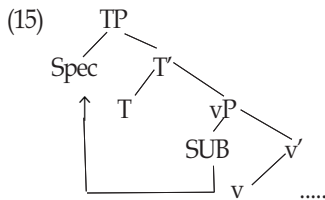
13) 익명의 심사위원은 부정극어의 허가 조건인 성분통어가 S-구조에서 이루어진다면, (13)예문에서 부정극어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동사의 LF이동/재분석과 별개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된다. 그래서 (13b)에도 화제화가 재분석될 수 있어 LF에서 기저에 위치되면, ‘nobody’가 부정극어 ‘anything’을 성분 통어하여 (13b)는 정문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동사가 이동해도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Chomsky(2001)<sup>14</sup>에서도 동사가 위치와 관계없이 똑같이 해석되면 해석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사는 이동해도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범조동사 ‘can’이 LF에서 v-to-T 이동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3. 병합과 동사이동

#### 3.1. 최소주의의 동사이동 위반 사항들

앞장에서 생성문법의 동사이동은 구문의 해석에 기여 안 하며, 동사이동의 흔적이 성분 통어 안 되고, 확장조건을 준수하지 않아서 통사부 이동이 아니라 PF나 LF 이동이라는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생성문법에서 동사이동의 위반 사항들도 생성문법 안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 첫째로 동사이동은 구문의 해석에 기여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래서 XP이동과 확연히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XP이동도 구문의 해석에 기여되지 않는 이동이 있다. 예로 [vP Spec]의 주어가 [TP Spec]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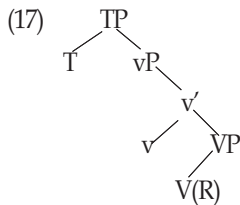
주어의 [TP Spec]으로의 이동은 EPP 때문에 모든 영어 구문에서 나타나는 이동이지만 구문의 해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둘째로 동사이동의 흔적은 성분통어 되지 않고 확장조건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동사이동의 위배 현상은 동사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엑스바라는 내심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즉 원래 언어구조는 엑스바와 같은 내심 구조로 표현되지 않는데, 언어구조를 이 불완전한 엑스바 내심 구조로 표현하려고 한데서 나오는 잘못된 현상들이다. 그 근거로 Chomsky(2005, p. 8)은 성분통어가 더 이상 올바른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

14) Chomsky(2001, p. 37): “The interpretive burden is reduced if, say, verbs are interpreted the same way whether they remain in situ or raise to Tor C”

(16) It became introduced a man<sub>i</sub> for himself<sub>i</sub>.

(16)의 ‘a man’은 ‘himself’를 성분 통어하지 못하지만 ‘himself’의 선행사가 된다. 따라서 통사부에서 성분통어 개념이 올바른 개념이 아니다. 또한 Chomsky(1995)부터 필수 구 구조(이후 BPS) 개념에 따라 확장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X^0$ 나 XP는 자유로이 병합되어  $X^0$ 나 XP가 명찰(label)을 형성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통사부의 올바른 통사체로 인정된다. 그래서 생성문법에서 제기된 동사이동의 위반 사항들은 엑스바의 내심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개념들이 된다. 셋째로 동사이동은 연쇄 일률성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연쇄 일률성 조건은 내용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XP는 XP로,  $X^0$ 는  $X^0$ 로 나타나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통사부에서 어떤 범주들이 결합하는지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자질을 인식하여 도출된다. 그래서 V가  $X^0$ 이고, V와 접사의 결합체인 V+접사도  $X^0$ 이므로 같은  $X^0$ 로 어느 정도 연쇄 일률성 조건이 지켜진다.

그리고 동사이동이 LF와 PF나 어형부 이동이 아니라는 확실한 주장은 최소주의의 주요 개념으로 알 수 있다. 만약 통사부에서 문자화(spell-out)가 되고 난 후 동사이동이 발생한다면 최소주의의 개념 자체인 국면 불가침 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sup>15</sup>과 그와 연관된 Chomsky(2021)에서 나타난 의미론의 이중성(duality of semantics)<sup>16</sup>에 따라 모순이 발생한다. 먼저 동사이동이 문자화 이후 PF나 LF에서 발생하면, 국면 불가침 조건으로 동사가 V(R)-to-v 이동되지 않는다.



(17)의 구조에서 vP가 국면이고 문자화가 되면 vP, v는 통사부에 남게 되고, 그 보여인 VP는 문자화 이후에는 더 이상의 통사적 운용이 불허되어 PF 해석을 받게 된다. 그래서 동사이동이 PF 현상으로 V가 PF에서 이동하면, 통사부에 있는 v로 이동할 수가 없다. 동사이동이 PF나 LF에서 이동하면 이 부분들은 통사부에서 문자화 이후에 적용되는 층위들이고, v에는 문자화가 적용되지 않아 PF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PF에서는 모든 언

15)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Chomsky, 2000, p. 108): In phase  $\alpha$  with head H, the domain of H is not accessible to operations outside  $\alpha$ ; only H and its edge are accessible to such operation.  
 16) Duality of Semantics (Chomsky, 2021, p. 18): EM is associated with  $\theta$ -role and IM with discourse/information-related functions.

어에서 같이 나타나는 V(R)-to-v이동(Chomsky, 1995)조차 나타날 수 없다. 한편 최소주의에서 V는 어근으로 병합되고 V(R)은 v로 이동하여야 진정한 동사가 되어 의미역을 줄 수 있다. 최근 Chomsky(2021)은 구문에서 EM은 의미역과 관련되고 IM은 담화/정보 기능과 관련된다는 의미론 이중성을 가지고 계속 설명한다. 그런데 동사가 문자화 이후 PF나 LF나 어형부에서 발생한다면 V(R)이 v로 병합될 수 없어 의미론의 이중성 역할을 할 수 없다. 즉 동사이동이 PF나 LF에서 발생하면 통사부에서 V(R)이 V(R)-to-v 이동을 할 수 없어 v는 동사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v는 줄 수 있는 의미역이 결정되지 않아서 의미론 이중성의 개념도 적용될 수 없다. 둘째로 최소주의에서는 강력 최소주의 가설(strong minimalist thesis: 이후 SMT)<sup>17)</sup>에 따라 언어는 언제나 최적의 상태로 도출되므로 운용의 반복을 원치 않는다. 즉 통사부에서 나타나는 이동 현상이 문자화 이후 PF/LF/어형부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은 운용의 반복이므로 최적의 도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통사부의 이동 현상이 LF나 PF 또는 어형부에서 반복된다면, 이는 최적의 도출 상태가 되지 않고 이러한 중복적 이동개념은 최소주의의 개념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 3.2. 최소주의의 구문 구조-병합

생성문법에서 최소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전의 엑스바 내심 구조를 버리고 병합만 인정하는 Chomsky(1995)의 BPS를 가정한다. 즉 Chomsky(1995)의 BPS에서 X', XP와 같은 개념들은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통사부에 있는 요소들의 일대일 병합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병합만으로 구문이 만들어진다고 인정하여 Chomsky(2013; 2015)에서는 통사부에서 다음(18)과 같은 병합만 존재한다고 한다.

$$(18) \text{ merge } (a, b) = \{a, b\}$$

(18)의 병합은 두 요소(a와 b)로 구성된 집합이며, a와 b 사이의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a와 b가 병합되면, 구문의 해석을 받기 위해 명찰(label)이 필요하다. 이 명찰 부여는 통사론의 규칙들이 아니라 단순한 기계적인 과정인 알고리즘으로 부여받는다. 그래서 명찰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18)의 {a, b}는 명찰을 통해 통사체 SO(syntactic object)로 인정받아 해석되고 이런 명찰 부여는 국면마다 필요하다. 원래 이 명찰 부여는 Chomsky(199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고 한다.

$$(19) \text{ merge}(X, Y) = \{K, \{X, Y\}\}, \text{ where } K = \text{label of the category formed by merging } X \text{ and } Y. \quad (\text{Chomsky, 1995, pp. 243-249}).$$

17) SMT: Language is an optimal solution the legibility condition. (Chomsky, 2001, p. 96)

이 병합은 X와 Y라는 두 개의 통사체가 결합하여 명찰 K인 한 개의 통사체로 되고 명찰을 통해 통사부에서도 올바른 통사체로 인식되며 이후 이 명찰로 해석과 발음을 한다.<sup>18)</sup> 그러나 X나 Y가 병합되어 명찰 K가 생성될 때, 이 명찰은 구문 내의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최소주의의 내포성 조건(inclusiveness condition)으로 다음 3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Chomsky, 1995, p. 244).

- (20) a. the intersection of  $\alpha$  and  $\beta$
- b. the union of  $\alpha$  and  $\beta$
- c. one or the other of  $\alpha$  and  $\beta$

(20a)는 두 요소가 교차하여 서로 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명찰로 하며, (20b)는 두 요소의 합을, (20c)는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명찰로 한다는 것이다. 최소주의에서는 Kayne(1994)의 어순 공리(LCA)<sup>19)</sup>에 따라 병합되는 두 요소는 어느 한쪽이 선행(precedence) 관계와 일방적 성분통어(asymmetric c-command) 관계이기 때문에 명찰도 두 요소 중 한 개가 되어야 한다. 즉  $\alpha$ 와  $\beta$ 가 병합하면  $\alpha$  아니면  $\beta$ 가 명찰 K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런 개념은 병합은 WS(workspace)에서 적용된다는 개념에 따라 Chomsky(2013; 2015)에서 merge를 Merge로 바꾸고 명찰 K가 특별히 생성되지 않고 단순히  $\{\alpha, \beta\}$ 가 나타난다고 한다.

- (21) Merge  $(X, Y) = \{X, Y\}$

즉 (18)처럼 따로 명칭 K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21)처럼  $\{X, Y\}$ 가 병합되면서 X가 자동으로 명칭이 된다. 여기서 명찰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기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방식으로 명찰이 부여된다. 첫째로 핵 X와 YP의 병합에서 X가 Y 안의 핵을 성분 통어하므로 X가 명찰이 된다. 하지만 XP와 YP와 같은 동등한 범주들의 병합에서는 서로가 성분 통어하므로 명찰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동하든지 아니면 XP와 YP가 서로 같은 특정한 자질을 가지면 자질공유(feature sharing)를 통해 명찰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핵 X와 핵 Y가 병합하는 동사이동은 어떻게 명찰이 정해지는가? 여기에 대해 Chomsky(2013; 2015)는 언급이 없고 이후 Chomsky(2019; 2021)에서는 동사이동은 병합 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18) Chomsky (1995, p. 243): The label is determined uniquely for  $\alpha$  and  $\beta$  in a language L, meaning that only one choice yields an admissible convergent derivation.

19) LCA (Kayne, 1994, p. 47): If  $\alpha$  asymmetrically c-commands  $\beta$ , then  $\alpha$  precedes  $\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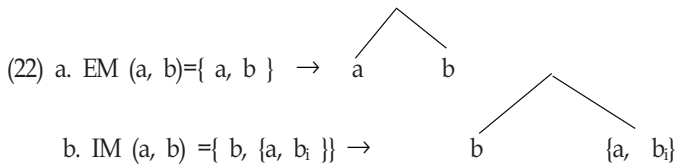
a.  $\alpha$  c-commands  $\beta$  iff  $\beta$  is contained in the sister of  $\alpha$ .

b.  $\alpha$  asymmetrically c-commands  $\beta$  iff  $\alpha$  c-commands  $\beta$  and  $\beta$  does not c-command  $\alp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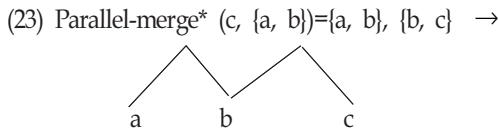
격식(desiderata)<sup>20</sup>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동사이동은 통사부의 운용이 아니라 PF에서 나타나는 운용으로 단언한다. 특히 Chomsky(2021, p. 36)에서는 동사는 표현(externalization)하는 범주로 언제나 접사와 결합하는 혼합(amalgamation)현상을 보여주므로 어형부의 운용이라고 단언하며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는다.

### 3.3. 병합의 규칙

Chomsky(2021, pp. 15-20)에 의하면, 병합은 두 개의 요소 합쳐져서 형성되는 가장 간단한 구문 형성 운용<sup>21</sup>이고 이 병합의 제약(constraint)은 SMT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2개의 요소만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결과(minimal yield)이므로 엄격한 이분지(binary)를 준수하여야 한다.<sup>22</sup>



즉 병합에서 언제나 두 개의 요소와 병합되어야 하므로 두 개의 요소와 병합되지 않는 등위 병합(parallel-merge)과 같은 다중 병합은 금지된다(Citko, 2005).



(23)에서 {a, b}의 b가 다시 c와 병합하여 {b, c}가 되어 다중 병합구조를 이룬다. 이런 다중 병합은 SMT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이동이 통사부 이동이면, 병합의 제약을 준수해야 하지만 동사이동은 언제나 (24)와 같은 인접이동이므로 다중 병합을 하므로 병합의 제약을 위배한다.

20) Chomsky(2019)는 병합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격식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a) Descriptive Adequacy (DA) b) Strong Minimalist Thesis (SMT) c) Restricting Computational Resources (RCR) d) Determinacy e) Stability f) Recursion g) Strict Binary. 이 격식들이 어떻게 동사이동과 관련되는지는 김대익(2021)을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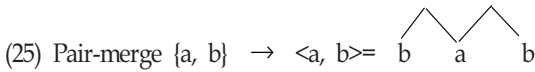
21) Chomsky (2021, p. 15): Merge is the simplest structure-building operation.

22) Chomsky (2021, p. 20): Merge( $X_1, \dots, X_n, WS' = \{ \{X_1, \dots, X\}, W, Y \}$ , satisfying SMT and LSCs. ... It maximally limits search, conforming to SMT and its corollaries. In particular,  $N=2$  and  $Y$  is null (by virtue of MY).

(24) Pair-merge

‘But it is an empirical fact that there is also an asymmetric operation of adjunction, which takes two objects  $\beta$  and  $a$  and form the ordered pair  $\langle a, \beta \rangle$  a adjoined to  $\beta$ .’ (Chomsky, 2004, pp. 11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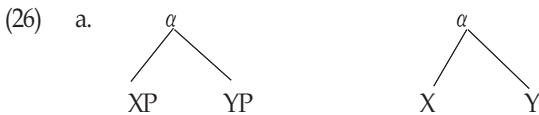
짝 병합이 되면, 인접되는 성격으로 등위 병합처럼, 일반병합과 다른 다중 병합 구조(multi-merge structure)를 보여주어 엄격 이분지(strict binary)를 어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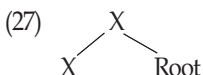
따라서 동사이동이 통사부 이동이 되려면 짝 병합(25)의 다중 병합구조를 이분지(binary)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본 글에서 동사이동의 짝 병합을 이러한 이분지 구조로 만든다고 설명한 Morro & Roberts(2022), Chomsky(2004; 2013; 2015)와 Kim(2023) 방법들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통사부에서 동사이동의 짝 병합을 이분지 병합으로 잘 설명하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3.3.1. 반균형성(antisymmetry)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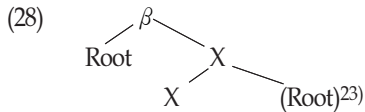
Morro & Roberts(2022, 이후 M&R)는 동사이동이 짝 병합하는데 이 병합을 할 때, 언제나 반 균형성(antisymmetry)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즉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성분 통어하는 관계가 되어야 Kayne(1994)의 어순 공리에 따라 음성 부분(PF)에서 어느 것을 먼저 발음되어야 할지 결정되므로 성분통어가 되지 않으면 두 요소 중 하나가 이동해야만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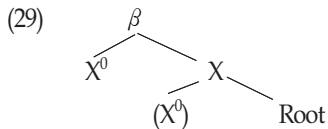
(26a, b)의 요소들은 서로 상호 성분통어를 하므로 PF에서 발음의 선형화(linearization)가 되지 못하므로 두 요소 중 하나가 이동하여 반 균형성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동사이동에서도 (27)처럼 서로 상호 성분 통어를 한다.



(27)이 되면 명찰은 X이지만 아래의 X와 Root가 상호 성분통어를 하므로 PF에서 어느 것을 먼저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X나 Root가 이동하면 앞서 동사의 인접이동으로 야기된 다중 병합 구조를 피할 수 있다. 이런 (27)에서 만약 Root가 이동하면, (28)과 같은 구조가 된다.



(28)에서 이동한 Root가 X를 성분 통어하므로 반 균형성이 확보되어 음성 부문에서 선형화가 된다. (28)에서 Root는 범주 자질(categorial feature)이 없어서  $\beta$ 의 명찰은 X가 될 것이다(M&R, 2022, p. 7). 그래서 이 경우 Root는 X의 보어이고 이 Root가 X의 왼쪽으로 이동하여서 이 경우에 핵 어미(head-final) 구조가 된다고 한다. 또한 만약 X가 이동하면 핵 선두(head-initial) 구문이 된다.



(29)에서 이동한  $X^0$ 가 Root를 성분 통어하므로 언제나  $X^0$ 가 Root보다 먼저 발음된다. 그래서 핵 선두 구조가 된다. 이런 M&R(2022)의 동사이동에 대한 반 균형성 주장은 동사이동의 인접이동에서 나오는 다중 병합 구조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동사이동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동사이동은 언제나 이동한 요소와 함께 이동하는 것인데 이 주장에서는 그 점을 포착할 수 없고, 또한 최소주의에서의 통사부의 병합에서 두 요소의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M&R(2022)의 주장을 본 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3.3.2. Chomsky(2004; 2013; 2015) 짝병합 방법

Chomsky(2004)는 짝 병합이 되면, 인접된 요소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떠 있는 상황이므로 통사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즉 일반 병합된 어휘들은 기본 비행기(primary plane)를 타고 있고, 동사이동과 같이 짝 병합된 어휘들은 다른 비행기(separate plane)를 타고 가므로 통사부에서 기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어휘들만 보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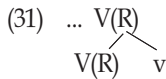
23) 발음되지 않은 복사는 선형화에 고려되지 않는다.



(30) Primary plane vs Separate plane (Chomsky, 2004, pp. 117-118)

‘Given the basic properties of adjunction, we might intuitively think of a as attached b on a separate plane, with b retaining all the properties on the primary plane, the simple structure.’

또한 Chomsky(2015)에는 V(R)이 이동하여 외부적으로 병합하여 <V(R), v>가 짝 병합이 되면, 이동한 V(R)이 그 범주의 주인(host)이 되고 오히려 접사 성격의 v가 인접한 구조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V(R)이 이동하지만 오히려 원래 있던 범주 v가 접사가 되어 부가어가 되어 V(R)에 인접되므로, v는 또 다른 비행기(separate plane)를 타고 있어서 통사부에 보이지 않지만, V(R)과 v는 혼합체를 이룬다<sup>24</sup>). 한편 문자화 과정에서 Chomsky(2004)는 순서가 있는 짝 병합은 이질적인 병합이므로 단순화(simplification: SIMPL)라는 운용을 통해 짝 병합된 <a, b>가 다시 {a, b} 병합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32) <a, b> -SIMPL → {a, b}

즉 SIMPL로 짝 병합된 <a, b>가 다시 기본 비행기로 옮겨 타서 LF와 PF에서 보인다고 한다. 이런 Chomsky(2004; 2013; 2015)의 주장은 접사가 보이지 않아서 위에서 말한 다중 병합구조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위해 ‘primary plane/separate plane’ 등의 새로운 개념을 가정하거나, 접사는 통사부에서 안 보이고 이동한 동사가 이동된 범주의 명찰이 된다는 여러 가지 가정들 및 서술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통사부에서 접사와 결합하여 동사이동이 되면, 통사부에서 접사가 보이지 않아 어형부에서 어디에서 접사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 즉 통사부에서 동사와 접사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어형부에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 외에도 혼합체(amalgamation) 형성에 대한 Chomsky(2015)의 모순점이 나타난다. Chomsky(2015, p. 6)에서 <V(R), v>가 짝 병합되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통사부에서 V(R)-v는 혼합체가 된다고 한다.<sup>25</sup>) 그러나 이 설명은 좀 문제가 있다. Chomsky(2015)에서

24) Chomsky (2015, p. 9): why then should v\* become invisible, universally? Recall that R raises to v\*, forming an amalgam [R, v\*].

25) Chomsky (2015, p. 6): ...Why then should v\* become invisible, universally? Recall that R raises to v\*, forming an amalgam [R, v\*]. What exactly is it.... Accordingly, raising of R to v\* yields an amalgam

$V(R)$ 이  $v$ 로 이동하면 오히려  $v$ 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므로(separate plane),  $V(R)$ 이 보이지도 않는  $v$ 와 어떻게 혼합체가 되는지 궁금하다. 연산체계( $C_{HL}$ ) 입장에서  $v$ 가 통사부에서 보이지 않아서  $V(R)$ 이 누구와 병합하는지 알 수 없어서 혼합체를 이룰 수 없다.<sup>26)</sup>

### 3.3.3. 명찰알고리즘 혼합체 방법

현재의 명찰 알고리즘에는  $X^0$ 와  $YP$ 와  $XP$ 와  $YP$ 의 알고리즘밖에 없지만 본 글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X^0$ 와  $Y^0$ 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동사가 이동하여 짝 병합이 되면, Chomsky(2013; 2015)의 주장처럼 혼합체(amalgam)가 된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본 글에서는 접사  $v$ 가 여전히 통사부에 보인다고 가정하며, 명찰 알고리즘에 따라 혼합체가 된다고 본다. 즉  $X(V(R))$ 가  $Y(v)$ 와 짝 병합하여  $\langle V(R)-v \rangle$ 가 되면, 인접된  $Y(v)$ 는 여전히 통사부에 보이고 대신 명찰 알고리즘에  $X^0$ 와  $Y^0$ 가 병합될 때, (33)처럼 서로 같은 자질을 공유하면, 혼합체가 되어 그 공유 자질이 명찰이 되어 단일한 요소가 된다는 다음과 같은  $X^0$ 의 명찰 알고리즘이 또한 있다고 제시한다.

(33) 명찰 알고리즘  $X^0-Y^0$ (혼합체 조건: amalgamation condition)

- a.  $X^0$ 와  $Y^0$ 가 같은 자질을 가지면 명찰이 되어 두 어휘는 혼합체가 된다.
- b.  $\langle V(R), v \rangle \rightarrow$  자질공유  $\rightarrow \phi$ 자질

즉 명찰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자질공유(feature sharing)가  $X^0$ 에도 적용되어 짝 병합  $\langle V(R), v \rangle$ 을 하나의 통사체(one-membered set)  $V(R-v)^0$ 로 만든다.  $V(R)$ 은  $v$ 에게서  $\phi$ -자질을 전승받아서  $V(R)$ 과  $v$ 는 같은 비해석성  $\phi$ 자질을 공유한다. 그래서 (33)의 명찰 알고리즘  $X^0-Y^0$ 로  $V(R)$ 과  $v$ 가 짝 병합하면, 자질공유로 하나의 혼합체  $V(R-v)^0$ 가 되면서 비해석성  $\phi$ 자질이 명찰이 된다. 또한  $T$ -to- $C$  이동도  $T$ 는  $C$ 에 의해 비해석성 자질  $\phi$ 를 전승받으므로  $C$ 와  $T$ 는 같은 자질을 공유한다. 그래서  $T(C)^0$ 의 혼성체가 된다.<sup>27)</sup> 이렇게 혼합체가 되면 동

---

with  $v^*$  adjoined to  $R$ , and the affix is invisible to the labeling algorithm. Note that although  $R$  cannot label, the amalgam  $[R-v^*]$  can.

26) 그래서 Chomsky(2021)에서는 혼합체가 어형부의 운용으로 동사이동도 어형부에서 나타난다고 말을 바꾼다.

27) 이 방법은  $v$ -to- $T$  이동도 설명할 수 있다.  $v$ -to- $T$  이동은 언어별로 다른 이동이 아니라 어휘별로 다른 이동이다(Chomsky, 1991, p.135). 영어에서 일반동사는  $v$ -to- $T$  이동이 안 되지만 have/be/do 동사는  $v$ -to- $T$  이동된다. 이  $v$ -to- $T$  이동은 어휘별로 달리 나타나는 이동이므로 영어 일반동사와 have/be/do 동사의 차이점은 인칭 자질의 유무로 구별된다(Kayne, 1989). 이 점에 따라 본 글에서는 영어 일반동사의  $\phi$ 자질은 인칭 자질이 없는  $\phi$ 자질이므로 영어 일반동사가  $T$ 로 이동하면, 주어는 인칭 자질을 가진  $\phi$ 자질이며 동사는 인칭 자질이 없는  $\phi$ 자질이므로  $XP-YP$  명찰 알고리즘에서 자질공유가 되지 않아 언젠가 비문이 될 것이다. 한편 have/be/do 동사는 인칭 자질을 포함한  $\phi$ 자질을 가져서  $T$ 로 이동하여도 주

사가 인접 이동하더라도 다중 병합 구조를 피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존 통사부에서 사용 되는 자질과 혼합체가 되는 조건만 명시함으로써 동사이동의 인접 이동이 보이는 다중 병합구조를 잘 피할 수 있다. 또한 접사와 함께 동사 이동하는 현상도 잘 설명되고, Chomsky (2019)의 일곱 개의 격식(desiderata)에도 잘 조화된다.<sup>28)</sup> 또한 기존 명찰 알고리즘에서 핵( $X^0$ )과 YP, XP와 YP의 알고리즘만 다루는 데 반해 본 글에서는 핵( $X^0$ )과 핵( $Y^0$ )의 알고리즘도 추가하므로 그만큼 명찰 알고리즘 방법이 확장되어 설명력이 풍부해진다.

#### 4. 결론

생성문법과 최소주의에서 동사이동이 과연 통사부 운용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 글은 동사이동은 여전히 통사부에서 나타나는 운용이며 동사이동의 인접 이동으로 나타나는 통사부의 위반사항들은 생성문법의 엑스바 내심 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위반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소주의에서 인접 이동으로 나타나는 병합의 다중지배구조를 제거 하기 위한 세 가지 통사적 설명 방법(반 균형성 방법, Chomsky(2004; 2013; 2015) 짝병합 방법, 명찰알고리즘 혼합체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 글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명찰알고리즘 혼합체 방법이 가장 최소주의에 부합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참고문헌

- 김대익. (2021). 동사이동과 짝병합. *현대문법연구*, 60, 47-68.
- Baker, M. (1985). The mirror principle and the morphosyntactic explanation. *Linguistic Inquiry*, 16, 373-415.
- Baltin, M. (2002). Movement to the higher V is remnan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3, 653-669.
- Boeckx, C., & Stjepanović, S. (2001). Head-ing towards PF. *Linguistic Inquiry*, 32, 345-355.
- Brody, M. (2000). Mirror principle. Syntactic representation in perfect syntax. *Linguistic Inquiry*, 31, 29-56.

---

어와  $\phi$ -자질 공유된다. 그래서 v-to-T 이동도 명찰알고리즘 혼합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Chomsky(2001)의 주장처럼 동사이동이 PF 이동이라면 과연 영어 일반동사와 have/be/do 동사의 v-to-T 이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28) 이 점은 김대익(2021) 참조 바람.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Chomsky, N.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ms. MIT.  
[Reprinted in *The minimalist program*, (pp. 129-166).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 Chomsky, N. (1993).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s. MI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D. Michaels, &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pp. 89-157).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r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pp. 1-53).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structures and beyond. In A. Belletti (E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pp. 104-1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33-49.
- Chomsky, N. (2015).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s. In E. Dementico, C. Hamann & S. Matteini (Eds.), *Structures, strategies and beyond: studies in honor of Adrian Belletti* (pp. 3-16). Amsterdam: John Benjamins.
- Chomsky, N. (2019). Some puzzling foundational issues: The reading program. *Catalan Journal of Linguistics. Special Issue, Generative syntax: questions, crossroads, and challenge* (pp. 263-285). <https://revistes.uab.cat/catJL/article/view/sp2019-chomsky>
- Chomsky, N. (2021). Minimalism: where are we now, and where can we hope to go. *Gengo Kenkyu*, 160, 1-41.
- Chomsky, N. (2023). The miracle creed and SMT. ms. (to appear).
- Citko, B. (2005). On the nature of merge: external merge; internal merge, and parallel merge. *Linguistic Inquiry*, 36, 475-96.
- Dékány, É. (2018). Approaches to head movement: a critical assessment.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3(65), 1-43.
- Edmonds, J. (1978). The verbal complex  $V' - V$  in French. *Linguistic Inquiry*, 9, 151-175.
- Fiengo, R. (1977). On trace theory. *Linguistic Inquiry*, 8(1), 35-62.
- Grodzinsky, Y., & Finkel, L. (1998). The neurology of empty categories aphasics' failure to detect ungrammaticalit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0(2), 281-292.
- Kayne, S. (1989). Notes on English agreement. Unpublished manuscript. New York: Graduate Center, CUNY.

- Lapointe, S. (1980). A lexical analysis of the English auxiliary verb system. In T. Hoekstra, H. van der Hulst & M. Moortgat (Eds.), *Lexical Grammar*, 215(54). Dordrecht: Foris.
- Lecher, W. (2005). Interpretive effects of head movemen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übingen.
- Matushansky, O. (2006). Head movement in linguistic theory. *Linguistic Inquiry*, 37, 69-109.
- Moro, A., & Roberts I. (2023). The duality of syntax: unstable structures, labelling and lineariz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Pollock, J. Y. (1989). Verb movement, UG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Schoorlemmer, E., & Temmerman, T. (2012). Head movement as a PF phenomenon: evidence from identity under ellipsis. In C. Jaehoon, E. Hogue, J. Punske, D. Tat, J. Schertz & A. Trueman (Eds.), *Proceedings of the 29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pp. 232-240).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 Roberts, I. (2010). Head movement and the minimalist program. Unpublished manuscript.
- Omune, J. (2019). A merge-based approach to head adjunction. *Journal of Inquiry and Research*, 109, 167-185.
- Ouhalla, J. (1991). Functional categories and parametric variation. New York: Routledge.
- Travis, L. (1984). Parameters and effects of word order variation.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 김대익

48015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영산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조리예술학부 교수  
 전화: (051) 540-7152  
 이메일: daeik@ysu.ac.kr

Received on October 26,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11, 2023

Accepted on December 31, 2023